■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535-558.
http://doi.org/10.17948/kcs.2019..84.535

1920年代 조선과 직역의 의미
—「The exploits of Elaine」의 조선어 번역과정을 중심으로—

정혜영(鄭惠英)*

목 차

1. 서론
2. 「엘렌의 功」 연재를 둘러싼 상황
3. '용감한 아가씨'의 등장과 1920년대 조선
4. 직역이 만들어낸 문제
5. 남은 문제들

국문초록

본 연구는 김동성이 1921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번역소설 「엘렌의 功」의 번역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이 근대적 서구를 이입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근대적 번역어를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서구 근대를 수용했다. 식민지 시기가 끝날 때까지 서구 근대의 번역과 관련한 이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근대 수용기 동안 우리와 서구의 사이에는 언제나 일본이 있었고 우리는 항상 '중역'의 형태로서 서구 근대를 수용하고 있었다. 일본어 번역을 조선어로 중역, 혹은 번안하여 서구문학을 수용하고 있던 조선의 상황에서 김동성은 원작을 직역하였다. 김동성의 직역소설은 서구 근대문학, 즉 서구의 근대를 일본이라는 매개 없이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곧 조선도 자율

* 대구대 인문교양대학 초빙교수.

적으로 서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김동성의 「엘렌의 功」의 번역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과 번역 간의 관계, 더 나아가서 식민지 조선의 근대 여부를 고찰하고 있다.

주제어: 김동성, 엘렌의 功, 일본, 번역, 중역, 직역, 근대성.

1. 서론

한국에서 번역의 의미 또는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대략 2016년 무렵이었다. 이 시기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국제적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학 경우 국제적 문학상 수상이 드물었기 때문에 수상 사실에 한국 사회 전체가 흥분했다. 작가 한강과 영어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공동수상이었다. 번역가가 작가와 함께 문학상을 공동수상하는 것은 한국 일반 대중에게는 상당히 낯선 풍경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번역가가 왜 수상을 하는 것이지?'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처럼 「채식주의자」의 멘부커상 수상은 수상 그 자체로서뿐 아니라, 번역자와의 공동수상이라는 이질적 상황으로도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작가와 번역가의 공동수상은 한국사회가 번역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데보라 스미스의 오역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번역의 의미와 번역가에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한국 문화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1)]

한국에서 번역에 관한 관심은 서구문학 수입의 오랜 역사를 고려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실제로 전문번역가가 번역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본격적으로 밝히고 나온 것은 최근 정영목의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가 출판되면서부터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을 투명하게 지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 말 그대로 '유령작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을 일상적으로

1) 오역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대중,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연구」, 『인문과학연구』 제51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 31-59면; 김번,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 『영미문학연구』 제32호, 영미문학연구회, 2017, 5-30면; 조재룡, 「번역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문학동네』 통권 제90호(2017년 봄호), 문학동네, 2017 등이 있다.

견"[2]려야 하는 번역가의 운명에서부터 '직역'과 '의역'의 차이 및 의미에 이르기까지 번역자가 거쳐야 하는 본질적 고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번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왜 이처럼 늦게 일어난 것일까. 여기에는 근대 조선의 서구문물 수용이 일본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거론될 수 있을 듯하다.

개화기를 거쳐 식민지 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본이 근대적 서구를 이입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근대적 번역어를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서구 근대를 수용했다. 소설, 시 등 문학서는 물론 사상서, 역사서에 이르기까지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 근대 서적을 조선어로 중역하여 수용해온 것이다. 식민지 시기가 끝날 때까지 번역과 관련한 이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근대 수용기 동안 우리와 서구의 사이에는 언제나 일본이 있었고 우리는 항상 일본이 번역한 서구, 즉 '중역'의 형태로서 서구 근대를 수용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서구 근대수용과 관련한 이와 같은 오래된 번역의 관습이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가로막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할 때, 식민지 시기 서구문학의 번역과 관련한 상황에 대한 고찰은 식민지 시기를 경험한 나라들이 근대, 혹은 근대문학을 어떤 형태로 수용했느냐는 문제와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시기인 1921년 김동성이 미국 탐정소설 「엘렌의 功(The exploits of Elaine)」[3]을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되짚어 보려고 한다.

2. 「엘렌의 功」 연재를 둘러싼 상황

1921년 2월 21일 『동아일보』가 속간된다. 논설의 불온성 문제로 정간 명령을 받은 지 5개월 만이었다.[4] 논설의 불온성은 구실일 뿐, 창간 때부터 '조

2) 정영목,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 문학동네, 2018, 44-45면.

3) 박진영도 지적하고 있듯, 'Elaine'의 한국식 표기는 '일레인'이 되어야 함에도 김동성은 '엘렌'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김동성 번역제목인 「엘렌의 功」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4)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창간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9월 25일 정간된다. 9월 24일, 25일 속 사설 「제사(祭祀) 문제를 재론하노라」 때문이었다. "총독부는 이 사설이 일본이 신념의 중추로

선 민중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하며 '민주주의 지지'를 내세운 동아일보의 행보가 조선총독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실질적 정간 이유였다. 실제로 동아일보는 창간호부터 3.1 만세운동 사건 공판기록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는가 하면 논설 「대영(大英)과 인도」에서는 식민지 인도에서 영국이 행한 악정을 논하면서 이를 조선의 상황과 대비하는 등 일제 식민정치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5] 일단 속간 1면은 1단의 동아일보사의 향후 방침과 각오를 담은 글 배치와 더불어 서화가 관재 이도영의 축하 기념화, 개벽사와 광익서관 등의 축하 광고 등 속간을 축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어수선한 축하 분위기 속에서도 동아일보는 프랑스 대혁명이나 근대 민중 정치 등의 기사를 게재하며 전투적 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속간 1면에서부터 근대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천리구 김동성이 연재소설을 맡고 있다. 번역소설 「엘렌의 功」이 그것이다. 민태원의 번역소설 「부평초」에 이은 『동아일보』의 두 번째 연재소설이었다.[6] 민태원은 와세다 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엘리트로서 『매일신보』에 「레미제라블」을 번역한 「애사(哀史)」를 싣는 등 번역에서는 물론, 작가로서의 필력도 인정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 뒤를 천리구라는 필명을 내세운 김동성이 이어받은 것이었다. 조선 문단에서는 물론, 조선사회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김동성이 동아일보 속간 연재소설을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김동성은 이미 1920년 8월 4일 첫 번역소설 「농조(籠鳥)」를 동아일보에 연재한 바 있었다. 「농조」는 총 10회 분량으로 동아일보 창간 때부터 연재되어 온 민태원의 「부평초」와 교대로 연재되었다. 소설 교대 연재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독자들의 관심을 매회 긴장감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해가야 하는 신문연재소설의 생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교대 연재라는 전무후무한 연재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일단

삼는 거울, 구슬, 칼 등 이른바 3종의 신기를 가지고 황실의 존엄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 정진석, 「日帝 탄압에도... 3·1운동 정신 동아일보 지면으로 계속 타올라」, 『동아일보』, 2019.4.1.

5) 이 논설은 8월 30일부터 정간되는 9월 25일까지 총 14회 연재된다.

6) 민태원의 「부평초」는 창간 때부터 정간까지 연재되었다.

민태원은 교대 연재 두 달 전인 5월 말에도 개인적 사정을 밝히며 「부평초」 연재를 갑자기 휴재한 적이 있었다.[7] 이때 5회분 창작 추리소설로서 휴재의 공백을 메워준 것이 김동성이었다.[8]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10회분 「농조」의 연재는 「부평초」의 연재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 타개를 위한 동아일보 나름의 고육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긴급사태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교대 연재라는 전례 없는 방식이 채택되기는 했지만, 동아일보도, 김동성도 이를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동성이 십 년간의 긴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것은 1918년이었다. 이 시기는 아직은 미국 유학생이 많지 않아서 "금의환향하는 날에는 왼 동리가 떠들어 과거(科擧) 이상의 베슬이라 한 듯이 일대 경사로 알든" 때였다.[9]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그때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신문학(新聞學)을 전공했고 외국어로 영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아는"[10] 엘리트 김동성을 동아일보로 끌어들인 것은 동아일보 발행인 이상협이었다. 이상협의 추천으로 김동성은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 시, 민태원, 진학문, 고희동 등과 함께 편집 간부로 이름을 얹는다. 김동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 유학파로, 미국 유학파는 김동성 한 사람이었다.

김동성은 미국 생활에서 경험한 선진 대중매체에 대한 감각, 영어 실력 그리고 미국 유학 이력을 활용하여 동아일보 내에서 입지를 굳히는 한편, 동아일보를 근대적 언론지로 만들어가는 데 힘을 더했다. 조선 언론사상 최초로 시사만화를 도입하는가 하면[11], 서구세계의 1차 세계대전 처리 상황을 분석한 영문논설을 원전 그대로 번역하여 게재한다.[12] 또한, 1920년 8월에는 부

---

7) 1920년 5월 20일 자 동아일보에 "소설 부평초는 작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일간 휴재"라는 글이 게시된 후 「부평초」는 1주일 정도 휴재한다. 이후 8월에도 8월 4일부터 21일까지 김동성의 번역소설 「농조(籠鳥)」와 교대 연재 형태로 연재된다. 「부평초」 연재 기간 동안 민태원이 개인적으로 연재를 지속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8) 1920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김동성의 추리소설 「그를 미든 까닭」이 「부평초」 휴재를 대신해 연재된다.

9) 吳天錫, 「米洲留學生의 面影」, 『삼천리』, 1933.3.1, 43면.

10) 金乙漢 編著, 『千里駒 金東成』, 을유문화사, 1981, 36면.

11) 1920년 7월 26일 「서울은행장의 죽엄」이라는 네 컷 만화를 게재하고, 같은 해 8월 2일에는 「흑인의 음악구경」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에 삽화를 첨가하고 있다.

분적이기는 하지만 극동 정세 시찰을 위해 북경을 방문한 미국의원단의 조선 방문을 이끌어낸다.[13] 이것이 기회가 되어, 1921년 10월 11일, 6년 만에 미국 하와이에서 2주간 개최된 제2차 세계기자대회에 동아일보 대표로 참석한다.[14] 참석자는 덴포 통신(電報通信)의 우에다 세키죠(上田碩三), 도쿄 아사히신문의 스기무라 고타로(杉村廣太郎), 서울 프레스의 야마가타 이소오(山県五十雄) 등 일본 내에서 특파원으로 이름을 날린 기자들, 그리고 동아일보사의 김동성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언론사, 그것도 창간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 언론사가 일본제국 유수의 언론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세계기자회의에 초청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징하는 바가 컸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김동성이 대표로 참석하게 된 것이다. 이는 동아일보 한 회사의 영광을 넘어서, 조선의 영광이기도 한 일이었다.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던지 김동성이 나머지 일행과 함께 배로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하와이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매일 매일 동아일보에 게재된다.[15] 기사는 배에서 무선으로 본사로 타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선 타전을 한 것은 당연히 김동성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동성은 바로 이 회의에서 일본 특파원들을 제치고 부회장으로 당선되기까지 한다.[16] 그리고 귀국 후에는 만국기자회의 참석 경험을 「포와행(布蛙行)」[17]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

12) 1차 세계대전의 처리를 둘러싼 서구세계의 움직임을 분석한 논설을 「歐洲는 野蠻和平」이라는 제목으로 192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게재한다.

13) 1920년 8월 10일 북경으로 가서 여운형의 도움으로 미국의원단 단장, 하원 외교위원장 등과 만나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의 문제점을 적은 영문 자료를 전달한다. 그러나 외교 문제를 우려한 의원단의 판단으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은 귀국하고, 포터 하원의원 등 11여 명만 조선을 방문하게 된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김을한, 앞의 책, 40-43면 참조.

14) 『동아일보』 1921년 10월 4일 자에는 만국기자대회에 동석하는 일본 측 대표들의 이름 및 소속이 명시되어 있다.

15) 동아일보에서는 1921년 9월 27일 「萬國記者大會에 我社代表參加」라는 제명 아래 김동성의 세계기자대회 참석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만국기자대회 진행 상황을 계속 게재한다.

16) 1921년 10월 22일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기자대회 부의장에 당선된다. 당선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동아일보에는 조선 각 사업체의 축하 광고가 게재되고, 동아일보 각 지국에서는 김동성 부회장 당선 자축 및 독자위안회가 개최된다.

17) '布蛙'는 하와이의 음역어이다.

김동성이 1920년 미국의원단 조선 방문 유치에서부터 1921년 세계기자회의 참석과 부의장 당선에 이르는 일련의 상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김동성 개인적 자질이 첫 번째 근거로써 거론되겠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김동성의 탁월한 영어 실력과 미국 체류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동성은 10년간의 미국 생활을 통해서 동시대 미국 사회와 동일한 문화적, 정치적 감각을 체득하고 있었다. 여기에 탁월한 영어 실력이 더해져서 그는 식민지 조선에 살면서도 조선의 한계를 넘어 여전히 미국 시민의 감각으로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18]

그러나 김동성은 한일합방 이전인 1908년 조선을 떠나 미국에서 십 년에 이르는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온 만큼 조선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상황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만큼 조선인으로서의 감각은 다소 약한 상태로서, 오히려 미국인으로서의 감각, 시각으로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일본제국, 그리고 세계정세를 대하고 있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미국의원단의 조선 방문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세계기자대회 동아일보 대표로서 참가해서 미국인 회장에 이어 부회장으로 선출된 김동성의 놀라운 행보는 이처럼 그에게 깃들어 있던 '미국인'으로서의 감각과 자신감이 결정적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감각과 자신감이 일본을 대할 때, 어떻게 발현되었을까를 고려해보는 것은 흥미롭다. 앞서 언급했듯 김동성은 근대의 원상(原象) 중 하나인 미국과의 직접 연결을 통해서 근대의 문화, 정치를 수용하고 있었다. 서구 사회를 뒤흔든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미국 언론의 논설을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그 정리과정을 파악하고, 황제암살범인 세르비아 청년 가브리엘을 주인공으로 한 영문 소설을 직접 읽으면서 발발 원인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읽은 영문 소설과 역사서, 정치서, 논설을 조선어로 번역하여 조선 독자들에게 소개하였다. 이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

18) 번역가로서 김동성 및 김동성의 번역과정에 대해서는 박진영, 「천리구 김동성과 셜록 홈즈 번역의 역사」, 『상허학보』 제27집, 상허학회, 2009, 277-317면;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소명출판, 2019에서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김동성이 일본이라는 매개 없이 서구 근대와 직접 관계함으로써 일본과 동등한 입장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속간 첫 연재소설인 「엘렌의 功」의 의미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 가능하다.[19]

김동성의 속간 연재소설담당에는 조선의 근대수용과 관련한 보다 본질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다. 멀리는 1908년 김찬의 「절세기담라빈손표류기」에서부터 가깝게는 동아일보의 첫 연재소설인 민태원의 「부평초」[20]에 이르기까지 조선에 소개된 모든 서구문학은 원작의 일본어 번역을 조선어로 중역, 혹은 번안한 것이었다. 이처럼 "번역 대국 일본을 거치지 않는 경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21]았던 조선의 서구문학 번역 상황에서 김동성은 원작을 직역[22]하여 소개한 것이다. 일본제국의 자장(磁場) 안에서 서구적 근대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던 조선에서 김동성의 직역 연재소설은 서구 근대문학, 즉 서구의 근대를 일본이라는 매개 없이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곧 조선도 자율적으로 서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는 점에서 혁명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 역시 이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23] 창간사에

---

19) 본 연구에서 김동성의 「엘렌의 功」을 일본어 중역이 아니라, 영어 직역으로서 규정한다. 일단 여주인공 이름인 Ellaine을 '일레인'이라는 원어에 가까운 표기를 두고 '엘렌'으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일본어 중역을 의심할 수도 있다. 일본어 번역에서 '엘렌'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작을 직역한 김동성의 번역과 달리, 일본에서 번역된 3편의 번역본은 모두 의역이다. 즉 일본에서 「엘렌의 功」은 「주먹(拳骨)」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3편이 번역되는데, 이 3편 모두 영화를 그대로 소설화했거나 의역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 근거할 때 김동성의 번역은 영어 원작을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20) 지금까지는 민태원의 「부평초」가 메이지 시기 번역가 기쿠치 유호의 「나의 죄(己が罪)」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부평초」는 기쿠치 유호 번역으로 1912년 슌요도(春陽堂)에서 출판된 『집 없는 아이(家なき児)』를 저본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21) 박진영, 「1910년대 번안 소설과 '정탐소설'의 매혹—하몽 이상협의 '貞婦怨'」, 『대동문화연구』 제52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299면.

22) 일반적으로 '직역(直譯)'의 사전적 의미는 "외국어로 된 글을 원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글귀 그대로 본래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원작을 직접 번역하되, 원작의 내용을 축약, 의역 없이 그대로 번역한 것을 직역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 범주에서 보자면 김동성의 「엘렌의 功」은 영어로 창작된 원작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이기에 직역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

서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이자, 문화주의'를 주지(主旨)로써 내걸고 있던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 창간의도인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세계 문명에 공헌케 하며 조선 강산으로 하여금 문화의 낙원이 되"[24]기 위해서는 서구문학의 직역 연재는 필수적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근대문학의 직역이야말로 단순히 문학전파의 문제를 넘어, 조선이 일본이라는 매개 없이 서구 근대와 직접 접촉한다는 것, 곧 조선의 자립을 의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10년 미국 유학 생활을 통해 습득한 탁월한 영어 실력에 더하여 미국문화까지 체득한 김동성은 여기에 최적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특히 구한말 한문 교육을 받은 후, 잠시 미션스쿨인 한영서원에 다니며 영어를 배우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만큼, 일본어가 끼어들 여지라는 것이 김동성에게는 없었다. 즉, 김동성은 일본이라는 매개 없이, 주체적 판단에 따라 번역대상인 서양 소설을 선택하고, 선택한 소설 원작을 번역해낼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김동성의 직역이 당대 사회 내에서 지닌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3. '용감한 아가씨'의 등장과 1920년대 조선

김동성은 1921년 2월 21일부터 같은 해 7월 1일까지 5개월에 걸쳐서 동아일보에 번역소설 「엘렌의 功」을 연재한다.[25] 원작은 미국 소설가 벤저민 아서 리브의 '크레이그 케네디 탐정 시리즈' 중 한편인 「The exploits of Elaine」이다. 지면 메우기 용으로 10회 분량의 번역소설 「농조(籠鳥)」를 동아일보에 연재한 경험이 있던 김동성이었다. 여기에 자신의 영문수필집 「Oriental Impression In America」을 「米州의 인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매일신

23) 김동성은 「엘렌의 功」에 이어,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 시리즈 중 다섯 편을 「붉은 실」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번역 연재한다. 이때 연재 예고에서 "이와 가튼 세계에 명성이 현자한 정탐소설을 영어의 재조가 깁흔 김천리구군(金千里駒君)이 원문으로부터 직역한 것이라."라면서 직역을 강조한 것을 볼 때, 동아일보나, 김동성 모두 직역이 지닌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新小說豫告」, 『동아일보』, 1921.7.13을 참조했음.

24) 「主旨를 宣命하노라」, 『동아일보』, 1920.4.1.

25) 「엘렌의 功」은 1921년 7월 1일 총 102회로 끝난다. 연재가 종결된 후, 무슨 이유에서인가 7월 2일 자 『동아일보』에 7월 1일 연재된 마지막 회가 한 번 더 게재된다. 이후 「엘렌의 功」은 1923년 신생활사에서 단행본으로 발행된다.

보에 연재한 경험도 있었다. 그런 만큼 김동성에게 번역이 새로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도 아니었을 듯하다. 작품 선택에서부터 영어와 대응되는 조선어 선정에 이르기까지 번역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오로지 김동성 개인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엘렌의 功」에 앞서 연재된 민태원의 「부평초」는 프랑스 소설 「집 없는 소년(Sans Famille)」의 일본어 중역으로, 일본에서는 1903년 처음 번역 소개된 것이다. 이후 1912년 상하 두 권으로 전면 재번역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26] 그리고 「엘렌의 功」과 같은 시기 매일신보 연재 소설란을 채우고 있던 입센의 「인형의 집」 역시 일본어 중역으로, 일본에서는 1911년 연극공연을 비롯해서 큰 이슈를 모은 소설이었다. 이처럼 일본어 중역 연재소설의 경우, 이미 일본에서 대중적 호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단 신문연재소설이 필요로 하는 대중성과 관련한 1차 안전점검을 마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영어 혹은 프랑스어에 대응하는 번역어가 한자로 성립된 상황이어서 조선어 번역과정에서 그 한자를 그대로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일본과 조선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조선어 번역과정에서 조선 상황에 맞는 다소간의 변용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다.

서구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20년대 조선에서 일본이라는 매개를 거치지 않고, 원작을 직역한다는 것은 이 모든 안전망을 포기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직역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양식에 맞춰서 대폭 바꿔 쓰기도 하고, 혹은 형식과 내용 양면에 걸친 원문의 이질성을 확연하게 드러내"[27]는 등 서구문학의 효율적 수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온 일본의 축적된 경험에 기대지 않고 주체적으로 서구, 혹은 서구문학과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동성은 왜, 어

26) 고라이 긴죠(五来欣造)가 1903년 요미우리 신문에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부모(未だ見ぬ親)」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것이 첫 번째 번역이다. 9년 후인 1912년 기쿠치 유호가 「집 없는 아이(家なき児)」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이래 수차례 재번역되다가 1928년에는 가이조(改造) 사에서 발행한 『세계대중문학전집』에 수록된다.

27) 井上建 編, 『翻訳文学の視界』, 思文閣出版, 2012, 88면.

떤 기준으로 「엘렌의 功」을 선택한 것일까. 그것은 곧, 영어로 창작되거나 번역된 수많은 세계문학 중에서 「엘렌의 功」이라는 미국소설이 1920년대 조선 사회와 지닌 연관성, 다시 말해서 번역을 둘러싼 문화적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기도 하다.

1910년대부터 1920년대에 이르는 시기 미국에서는 위기에 빠진 아가씨를 주제로 한 '시리얼 필름(Serial film)'이 유행한다. 시리얼 필름이란 한 챕터를 일주일 상영한 후 그다음 챕터를 다음 주에 상영하는 형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연속극 형태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었다. 영화관에서 모든 챕터가 상영되고 나면 작가가 그 내용을 묶어서 책으로 출판하는데 「엘렌의 功」은 그런 연속활극을 대표하는 영화 중 한 편이었다. 「엘렌의 功」의 내용은 간단하다. 여주인공 엘렌과 과학 탐정 크레이그 케네디가 함께 힘을 합해서 엘렌의 아버지 살해범이자 연쇄살인을 자행한 악당 'clutching hand' 즉 '움켜쥔 주먹'을 잡아 악을 분쇄하는 것이 주된 줄거리이다.

여주인공 엘렌은 당시 "99개의 목숨을 가진 소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악당 '움켜쥔 주먹'의 표적이 되어서 매회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온몸의 피가 뽑히기도 하고, 침실 벽지를 따라 설치된 비소를 통해 뿜어져 나온 가스에 질식할 뻔하기도 한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반복하는 그 강인한 특징 덕분에 엘렌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병사들에게 "견줄 데 없이 용감한 소녀"로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8] 이 인기를 타고 「엘렌의 功」은 제1차 세계대전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던 1915년, 참전국 일본에서도 개봉된다. 영화가 상영된 바로 그해, 세 종류의 번역서가 출판될 정도로[29]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지만, 무슨 이유에서

28) Maggie Hennefeld, 「The Exploits of Elaine(1914): Expanded Essay for the National Film registry」, https://www.academia.edu/14489270/The_Exploits_of_Elaine_1914_Expanded_Essay_for_the_National_Film_Registry(2019.08.12 검색).

29) 일본에서는 주인공 연쇄살인마의 별명인 'clutching hand'의 일본어 번역 '拳骨'(주먹)을 영화의 제목으로 채택하여 1916년 3월 본작의 1편이 개봉된 이후 계속해서 개봉된다. 소설 역시 동일한 제목으로 1916년 번역, 발행된다. 번역소설은 ① 영화를 그대로 옮긴 듯한, 全長七万 訳으로 活動の世界社編輯局에서 발행된 「拳骨」, ② 青木緑園 著로 中村日吉堂에서 출판된 「拳骨」, 마지막으로 ③ 俊碩剣士 著로 春江堂書店에서 발행한 탐정 활극 「拳骨」 세 종류가 있다. 세 편 모두 영화 내용

인지 조선에서는 개봉되지 않는다.

김동성은 「엘렌의 功」이 대호평을 받으며 상영되던 1914년에서 1915년에 이르는 시기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미국 무성영화 시대의 대표적 시리얼 필름이자 최고의 인기 여배우 폴 화이트가 주연한 영화 「엘렌의 功」을 그가 봤을 가능성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추리소설 형식을 띤 「그를 미든 까닭」을 첫 창작소설로 발표할 정도로 추리소설을 선호한 김동성의 취향을 고려할 때, 그가 당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크레이그 케네디, 과학 탐정」 시리즈를 읽었을 가능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엘렌의 功」은 바로 「크레이그 케네디, 과학 탐정」 시리즈 중 한 편이었다. 그러나 김동성이 미국에서 「엘렌의 功」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는 김동성이 동아일보 속간 첫 연재소설로서 이 소설을 선택한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김동성은 긴 시간 조선을 떠나있었던 만큼 조선 대중의 감성이나, 취향에서 유리되어 있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조선 대중과의 접점 모색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1920년대 조선의 문화적 상황과 김동성, 그리고 「엘렌의 功」 간의 접점은 무엇일까. 이 지점에서 '탐정모험소설' 「명금(名金)」의 출판을 하나의 단서로써 거론할 수 있다. 1915년 미국에서는 「엘렌의 功(The exploits of Elaine)」(1914)에 이어 또 다른 모험 활극 시리얼 필름 「The Broken coin」(1915)이 상영되어 대단한 호평을 받고 종영과 더불어 소설로도 출판된다. 미국에서의 호평 덕분인지, 미국 개봉 3달 후인 9월 일본에서 「메이킨(名金)」(1915) 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어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후, 다음 해인 1916년 조선에서 「명금(名金)」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어 역시 큰 호응을 얻는다. 영화상영 직후 5개가 넘는 출판사에서 다양한 번역가들에 의해서 소설 역시 번역, 출판되었던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영화상영 4년이 지난 1920년, 일본어 원작을 저본으로 하여 비로소 소설이 번역, 출판된다.[30] 물론 소설 출판 1년

을 그대로 소설로 옮겼거나 원작을 작가의 의도대로 의역하고 있다.

30) 조선어 번역 「명금(名金)」은 신명서림에서 '탐정모험소설'이라는 제목 아래 윤병조 번역으로 1920년 11월 18일 첫 출판된다. 윤병조 번역본은 中村日吉堂에서 발행한 青木緣園 번역 「메이킨(名金)」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역 출판 일 년 후인 1921년 7월 28일 영창서관에서

전인 1919년 11월, 영화 잡지 『녹성』 창간호에 「명금(名金)」의 남녀 주인공 사진 화보가 게재된 바 있다.[31] 「명금」 상영으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조선 대중들은 여전히 「명금」이 만들어 준 꿈과 환상 속에 있었던 것이다.[32]

김동성의 조선 귀국이 1918년이었으니 그가 「The Broken coin」을 봤다면 그것은 미국 어느 영화관에서였을 것이다. 당연히 자신이 본 미국영화 「The Broken coin」이 1916년 「명금」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서 상영되어, 놀라운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그런 김동성에게 영화 잡지 『녹성』 창간호 화보에 게재된 「명금(名金)」 남녀 주인공 사진이라거나, 「명금(名金)」 출판소식은 십 년간의 미국 생활로 인해 좀체 접점을 찾기 어려웠던 조선 대중과 자신을 이어주는 반가운 연결고리였음이 분명하다. 이 지점에서 김동성이 미국에서 「명금(名金)」과 더불어 큰 대중적 호응을 얻었던 「엘렌의 功」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1919년 창간된 『녹성』 창간호에는 모험 활극의 인기 속에서 조선에서는 상영되지도 않았던 또 다른 모험 활극 「엘렌의 功」의 주인공 여배우 폴 화이트의 대담 번역까지 실려 있었다. 김동성으로서는 「엘렌의 功」을 동아일보 연재소설 대상으로서 고려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동성이 번역소설을 연재할 지면은 동아일보 속간이었다. 대중성만으로 연재소설을 결정할 정도로 동아일보가 처한 정치적 상황이 평화롭지가 않았다. 강제정간의 울분과 1919년 3.1운동의 사후처리에서 생겨난 민족적 감정이 동아일보 속간에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식민지 상황에 대한 정치적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낼 수는 없지만, 식민지 조선의 사회, 문화적 개조와 관련한 목소리 정도는 내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다. 이 점에서 「엘렌의 功」이 "'가부장으로부터 독립한 젊은 여성'의 표상"이 광범위하게 등장하던 20세기 초반, "전 세계 극장을 수놓았던 용감한 소녀들"[33]의 이야기

'사진소설 대활극'이라는 제목 아래 송완식 번역으로 다시 출판된다. 송완식의 번역은 2년 후인 1923년 재판이 발행된다.

31) 「명금(名金)」 조선 상영, 3년 후인 1919년 발행된 『녹성』 창간호(1919.11.)에는 「명금(名金)」 여주인공 '기지구레' 즉 '키티 그레이'를 맡은 그레이스 커나드와 남편 역을 맡은 조셉 모어의 사진이 나란히 게재되어 있다. 아울러 모험 활극에 관한 다양한 글이 실려 있다.

32) 박태원의 「오월의 훈풍」(1931)에서와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에서도 「명금(名金)」이 모티프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식민지 시기 이 영화의 인기는 현재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듯하다.

즉, 시리얼 퀸 시리즈의 하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엘렌의 功」이 번역, 연재된 1921년의 조선에서도 '여성해방'을 주장하고 나선 '용감한 소녀'들이 일으킨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1914년 일본 여자 사립미술학교에 유학 중이던 열아홉 살의 나혜석이 논설 「이상적 부인」을 발표하며, 현모양처론을 비판하고 나서서 조선 사회에 파란을 일으킨다. 이를 시작으로 김명순, 김원주 등 동경 유학 중이던 신여성 그룹들이 '여성의 자립'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최초의 여성 친목 잡지 『여자계』(1918)를 만들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그들 중 한 사람인 김명순은 「의심의 소녀」(1917)로 여성작가 소설로서는 처음으로 남성 중심 문예지 『청춘』 현상모집에 당선된다. 이어서 나혜석이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소설 「경희」(1918)를 발표한다. 조선의 '용감한 소녀들'이, 조선을 지탱해온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의 전통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34]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1921년 1월 25일 헨리크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이 양건식 번역으로 『매일신보』 1면에 연재된다. 같은 해 4월 3일 나혜석이 입센의 노라를 모티브로 한, 같은 제목의 시 「인형의 家」를 발표하면서 반란은 최고조에 달한다. 1920년대를 전후한 시기 조선 사회에 휘몰아친 이와 같은 개혁의 바람 속에서 용감한 소녀의 모험담을 다룬 「엘렌의 功」(1921.2.25.)이 번역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김동성이 동아일보 속간의 연재소설로서 「엘렌의 功」을 선택한 것에는 여성의 자립과 관련한 1920년대 대사회적 흐름과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4. 직역이 만들어낸 문제

김동성이 번역한 「엘렌의 功」은 크레이그 케네디라는 탐정이 악에 대적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탐정소설이다. 탐정소설이기는 하지만 셜록 홈스류의

33) 백문임, 「1910년대 조선의 눈에 비추어진 시리얼 퀸」, 『연세대학원 신문』 제199호, 2013.6.20.
34) 이들이 불러일으키는 파란이 너무 컸던지 동아일보는 창간 이틀 후인, 1920년 4월 3일, 여성운동가 이일정이 논설 「남녀동권은 인격의 대립」을 게재하며 현모양처주의의 의미와 정조관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오기까지 한다.

정통 추리물과는 달리 낭만적 연애, 모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35] 소설의 한 축을 이루는 여주인공 엘렌은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서슴지 않고 크레이그 케네디를 따라서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는 용감한 소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재난과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아이기도 하다. 악당 '움켜쥔 주먹'이 편집증 환자처럼 오로지 엘렌 죽이기에 골몰하여 그녀를 위기에 빠트릴 때마다 위기를 해결하고 엘렌을 구출해내는 인물이 연인인 크레이그 케네디 탐정이다. 크레이그 케네디가 위기를 해결하는 결정적 힘이 되는 것은 셜록 홈스류의 치밀한 추론의 과정이 아니라 눈부신 과학기술이다. 그래서 그는 '과학 탐정'이라는 별도의 이름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소설에서는 과학용어나 과학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테르밋'이라는 화학 약품에서부터, 에틸 염화물, 산소 아세틸렌과 같은 어려운 화학 용어는 물론, 마취제(몽혼약), 듀어병(진공병), 감진기(感震機), 신종 폭탄 등의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한다. 여기에 걸맞게 크레이그 케네디는 빈 시간에는 화학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이 취미인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다. 아울러 화자인 '나'는 "과학이 발달된 것을 탄복치 아니할 수 없다"며 과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 정도로 '과학'은 이 소설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 덕분에 크레이그 케네디는 탐정소설의 탐정들이 거치게 마련인 머리 아픈 추론의 과정을 애써 더듬지 않고도 쉽게 사건을 해결한다.

김동성은 원작의 이 무수한 화학 용어와 새로운 과학기술을 번역과정에서 빠트림 없이 그대로 옮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산소(酸素)'라거나 '염화물(鹽化物)', '화학(化學)', '폭탄(爆彈)', '진공(眞空)' 등 일본이 서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조선에 수용된 '번역어'에 크게 빚을 지고 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엘렌의 功」은 180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 온 서구의 과학적 성과를 집대성

35) 최애순은 「엘렌의 功」을 '육박전과 과학전'이라는 흥미로운 제목 아래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엘렌의 功」은 "탐정이 범인 찾기에 주력하는 서구의 고전적 유형을 벗어난다"고 지적한 후, "탐정이 연루되는 감정적 면모", 즉 탐정소설과 연애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애순, 「식민지 시기 탐정소설의 번역과 수용양상 및 장편 번역 탐정소설 서지연구」, 『현대소설연구』 제4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496-500면 참조.

한 것으로서 이 성과를 김동성은 조선 대중들에게 여과 없이 풀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1920년대 조선의 대중들은 김동성이 풀어놓은 이 놀라운 성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일까. 일단 식민지 조선에서 이과(理科), 즉 과학이 필수교과목이 된 것은 1920년 11월 조선교육령 부분 개정으로 보통학교가 6년제가 되면서였다. 그 이전까지 4년제 보통학교제에서 이과는 3, 4학년에서 주당 2시간씩 선택과목으로 배당되어 있었다.[36] 1920년 기준, 초등 교육률이 6%에도 미치지 못했던 조선 상황에서 어차피 이과 교육의 시수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37] "조선의 일반 민중 대부분이 문자에 맹목"[38]이라는 1922년 동아일보 사설의 한탄처럼, 이 시기 조선인 대다수가 문맹인 현실에서 과학교육 여부란 어차피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1920년대는 일본어와 조선어가 함께 사용되는 이중언어적 상황이 상당 부분 정착된 시기였다. 1911년 조선교육령에 의거하여 당시 보통학교에서는 주당 10시간씩 의무적으로 일본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질적 서양풍경과 인명, 낯선 과학용어가 난무하는 어려운 탐정소설을 읽을 수 있는 독자는 당연히 보통학교에서 주당 10시간씩 행해진 일본어 의무교육을 받아, 일본어 해독능력 역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굳이 일본어 번역본의 조선어 중역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일본어 번역본을 구해서 읽거나, 이미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다.[39] 여기에서 번역과 관련한 본질적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과학용어와 서양 지명

---

36) 조선총독부 하 초기 "초등교육기관은 4년제 보통학교로 이과(理科)를 수의과목으로 3, 4학년에 주당 2시간씩 부과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송민영, 「조선총독부하 초기의 우리나라 초등과학교육의 상황—조선총독부편찬 《보통학교이과서(1913)》—」,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 제17집 2호,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1998, 76면; 「조선총독부하 6년제 보통학교에서의 초기의 과학교육상황」,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5권 1호, 한국일본교육학회, 2001, 89-90면을 참조했음.

37) 보통학교, 간이학교, 사립 각종학교를 포함한 초등교육 현황은 1920년에는 5.7%, 1921년에는 7.8%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吉川宣子, 「일제시대 초등교육기관의 취학상황」, 『교육사학연구』 제23집, 서울대 교육사학회, 1990, 142면을 참조했음.

38) 「사설」, 『동아일보』, 1922.1.5.

39) 1909년 12월 31일 이광수가 일기에 기록한 그해의 독서목록은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명시된 독서목록을 대략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虞美人草』, 『海賊』, 『バイロン』, 『プシキン』, 『ゴルキ短篇集』, 『春』, 『思出の記』, 『アンナカレリナ』, 『イカモノ』, 『復活』, 『湖上の美人』, 『建築師』, 『破戒』, 『ナポレオン言行錄』" 이상의 내용은 『조선문단』 1925년 4월호 참조.

으로 가득 찬 이 난해한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이 그것이다. 누가 조선어로 연재된 이 난해한 내용의 서양 소설을 읽을 것인가? 김동성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던 듯하다.

김동성이 생각지 못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한문체 편지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경계자(敬啓者)'나 '재배(再拜)'[40]라는 용어에서부터 '천추(遷推)', '현연(顯然)'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한문어휘를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그 한문어휘를 한자 병기 없이 한글로만 쓰고 있었다. 1917년 매일신보의 첫 연재소설인 이광수「무정」을 비롯해서 동아일보 첫 연재소설인 민태원「부평초」에 이르기까지 일반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고, 언문일치체 문장의 확립을 위해서 신문연재소설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아울러 한글로 표현 가능한 것은 가능한 한 한자 어휘를 사용치 않고 한글로 풀어서 표현하였다. 이런 시기, 김동성은 선진적 서양세계를 묘사한 소설을 번역하면서 시대를 역행하듯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던 한문어휘를 첨가한 조선어를 구사한 것이다.

김동성이 구사하는 조선어의 문제는 자신의 영어 에세이「Oriental Impres-sions In America」를「미주의 인상」(1918)이라는 제목의 조선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다. 'a long range of mountains'를 '高山峻嶺'으로, 'skyscraper'를 '鐵甕石閣'으로 번역한 것이 하나의 예이다. "영어 원문에 담겨있던 간략하지만 현장감 있는 미국 사회에 대한 김동성의 생생한 인식이 '한문' 중심의 문어체로 번역"[41]되면서 원문의 맥락을 전혀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김동성의 조선어 감각이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떠난, 1908년까지의 성장기 동안 조선에서 익히고 배운 한문체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청년기 10년 동안 모국어인 조선어와 떨어져"서, "조선 근대문학의 언문일치체 확립과정을 지켜보지 못했던, 조선과 김동성, 조선어와

40) '경계자(敬啓者)'는 삼가 말씀드린다는 뜻으로 '謹啓', '拜啓' 등과 함께 한문체 편지의 첫머리에 쓰는 말이다. '재배(再拜)'는 역시나 한문체 편지에서 두 번 절을 한다는 뜻으로 편지의 사연을 끝내고 자기 이름 뒤에 쓰는 용어이다.

41) 정혜영,「번역과 근대적 문체형성」,『외국문학연구』제59호,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15, 362면.

김동성 간의 10여 년간의 시간의 간극"[42]이, 「엘렌의 功」 번역과정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김동성은 영어의 시제에 익숙했던 때문인지 "먼저 갔던 도적놈 셋은 그 큰 자동차를 타고 미리 정하여 두었던 곳으로 갔었고, 그 후에 (…) 달아났던 세 자동차가 또 왔다."처럼 과거와 대과거를 구별하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김동성은 「엘렌의 功」을 번역하면서 조선 현실과는 유리된 근대적 과학 지식을 여과 없이 그대로 번역한다. 그 과정에서 새롭고도 근대적 내용을 전통적인 한문투나, 한문어휘에 담는 것과 같은, 일종의 내용과 표현 간의 이율배반적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낯선 인명과 지명,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용어, 어렵고, 딱딱한 한문어휘까지,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소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여기에 더하여 「엘렌의 功」의 1인칭 시점은 당시 조선 독자들로서는 참으로 이질적인 것이었다. 원작은 탐정 크레이그 케네디의 친우이자 신문기자인 '나'(제임스)가 탐정 크레이그 케네디의 사건 해결 과정을 서술해가는 1인칭 서술자 시점으로 소설이 진행된다. 김동성은 원작의 1인칭 시점을 번역과정에서 그대로 채택한다.[43]

그러나 우리 소설에서 '시점'에 대한 인식이 등장한 것은 「엘렌의 功」 번역에서 불과 4년 전인, 1917년, 최초의 근대소설 이광수 「무정」에서였다. 「무정」은 당시 조선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던, 3인칭 '쓰다'의 과거시제를 도입하여 언문일치체를 이루기는 했지만, '무인칭적 시점'과 '더라'와 같은 고전소설적인 문체의 흔적이 여전히 혼재된 상태로 남아 있는 소설이었다. 이 상황에서 1인칭 시점의 도입은 좀 더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무정」으로부터 2년이 지난 1920년, 김동인 「마음이 옅은 자여」에 이르러서였다. 말하자면 근대소설의 '인칭'이라거

42) 정혜영, 앞의 글, 2015, 364면.

43) 이와 같은 점은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번역된 코난 도일 셜록 홈즈 시리즈의 번역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 김동성은 「엘렌의 功」에 이어서 곧바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5편을 번역하여 연재한다. 이때에는 원작의 1인칭 관찰자 시점을 그대로 번역한다. 그러나 김동성의 번역과 1941년 조광사에서 기획한 '세계걸작탐정소설전집'의 「바스커빌의 괴견」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번역인 「충복」(1918)을 비롯하여 모든 작품이 번역과정에서 3인칭 시점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식민지 유일의 탐정소설 전문작가였던 김동성 번역의 「심야의 공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혜영, 『탐정소설의 영역』, 역락, 2012 참조.

나 '시점'에 대한 인식은 1921년 조선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전위적인 개념으로서 일반 독자들에게 수용되기에는 시기상조였던 것이다. 「엘렌의 功」이 한글 표기를 통해 대중성 확보에 주안점을 둔 신문연재소설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인칭' 시점의 채택은 상당히 이율배반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 연속활극을 소설화한 「명금」에서 '더라', '노라' 등의 고소설 문체가 그대로 사용될 정도로, 당시의 독자들은 여전히 서술자가 이야기 내부에 깊게 개입해 있는 고소설적인 '무인칭' 시점의 현재 시제형 문체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44] 이것이 바로 「엘렌의 功」이 번역된 1921년 조선 대중의 현실적 상황이었으며 조선 문화의 현주소였다.

조선 독자들에게 문학의 시점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조선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김동성은 고집스럽게 번역과정에서 1인칭 시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직역'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동성이 마침내 이와 같은 근대문학의 시점과 당시 독자 간의 괴리를 인지했던 것일까. 마지막까지 원작의 시점을 엄격하게 고수하던 그가 마지막 회에서 갑작스럽게 '서술자'가 소설에 얼굴을 내미는 형태의 의역을 해버리고 있다.

① "Step aside for a moment, you fellows, won't you please," Craig asked. "I will hear what you have to say, Long Sin." Long Sin looked about craftily. "What is it?" prompted Craig, seeing that at last they were all alone. Long Sin again looked around. "Swear that I will go free and not suffer," Long Sin whispered, "and I will betray the great Clutching Hand." Kennedy studied the Chinaman keenly for a moment. Then, seemingly satisfied with the scrutiny, he nodded slowly assent. As Craig did so, I saw Long Sin lean over and whisper into Kennedy's ear. Craig started back in horror and surprise.[45]

② 케네디씨는 우리다려 잠간 피하여스라하고 무엇이 네가 하려는 말이냐무릇

44) 1923년 발행된 송완식 번역본 경우, 저본으로 삼은 일본어 번역인 春江堂書店의 北島俊碩 번역의 「名金」이 언문일치체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였더라', '할지라'와 같은 고소설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번역태도에서 본 연구 주장의 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45) Arther B. Reeve, *The Exploits of Elaine*, Harper Brothers Publishers, 1915, pp.279-280.

> 더니롱신은 나를 노아주면 비밀한말을 하겟다하엿슴으로 긴한말 가트면 그리하마는 허락을 하엿더니 롱신은 귀에 대이고 중얼중얼하엿다. 케네디씨는 그말을 듯고 발거름을 뒤로 멈칫하며 평생 처음 그러케 몹시 놀라는빗을 나타내엿스니 그 무슨비밀에 그다지 놀낫던고 이 책은 십사장으로 끗을 맛는대 이다음장 곳 십사장을 읽으면 그 비밀이 폭로될뿐만 아니라 독자여러분도 케네디씨와 가치 놀랄는지도 아지못한일이다."[46]

김동성은 마지막 회에 이르러 "독자여러분"에게 소설의 클라이맥스를 주시해달라는 요청을 전하며, 서술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소설 내부에 개입해버리고 있다. 101회를 연재하는 동안 원작의 시점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단 한 번도 서술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동성이었다.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자신이 고수해온 직역의 원칙을 깨트려버린 것일까. 일단은 조선의 열악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김동성이 마침내 백기를 내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여전히 조선 사회의 국외자로 있었던 김동성이 당대 조선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조선 사회에서 서구문학의 번역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옳을 듯하다.

5. 남은 문제들

김동성은 「엘렌의 功」 연재를 마치자 곧 동아일보에 「붉은실」이라는 제명으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 시리즈를 번역 연재한다.[47] 이번에는 '직역'을 대대적으로 내건 홍보 글까지 동아일보에 게재된다. 「엘렌의 功」 번역 연재 마지막 순간, 결국 조선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백기를 들고 원작의 시점과 달리 서술자의 얼굴을 드러내 버린 김동성이었다. 그런 그가 다시 또 '직역'을 내건 것이다. 그러나 또 직역을 내걸기는 했지만 「붉은실」은 「엘렌의 功」과 비교할 때, 직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였다. 「엘렌의 功」에서 원작의 어려운 화학 용어, 과학기술 관련 설명을 모두 번역하고 있던 것과

46) 김동성, 「엘렌의 功」, 『동아일보』, 1921.6.30.
47) 김동성은 셜록 홈스 시리즈 중 5편을 골라서 「붉은실」이라는 제명 아래 1921년 7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다.

달리, 「붉은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탐정소설의 경우, 식민지 시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까지 '번안'에 가깝게 축약되어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던 조선이었다. 예를 들면 식민지 시기 유일의 탐정소설 작가였던 김내성은 자신의 일본어 창작 탐정소설을 조선어로 번역하면서 역시나 내용의 변형, 축약은 물론 변사의 역할을 물려받은 듯한 서술자를 소설에 드러내고 있었다.

탐정소설 번역과 관련한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붉은실」은 직역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다. 문제는 번역자 김동성의 태도이다. 「엘렌의 功」에서 고수했던 번역 태도를 곧바로 이어진 「붉은실」 번역과정에서는 포기해버린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식민지 시기 탐정소설 번역에 손을 대었던 많은 조선 엘리트들의 번역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들 식민지 엘리트들이 원작을 조선어로 해석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굳이 일본어 번역을 중역한 것일까. 백 번 물러서서 이 가설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중역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 예를 들자면 '무인칭 시점'이라든가, 추론 과정 생략 등 탐정소설 특유의 치밀한 외부세계 응시의 시선을 모두 포기해버린, 번역 탐정소설의 기묘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기가 어렵다. 원작 대신 일본어 번역을 저본으로 삼아 중역하고, 중역의 과정에서 탐정소설로서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의 변형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본 연구가 직역과 관련한 김동성의 태도 변화에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상황에 대한 하나의 답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서구 탐정문학의 번역과 관련한 식민지 시기 조선의 독특한 상황은 식민지 조선 엘리트들의 외국어 해독능력이라든가, 탐정소설에 대한 이해 정도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문제는 식민지 조선의 전근대적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추론적 사고와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서구 탐정소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문화적 기반이 식민지 시기 조선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적어도 번역에 손을 댄 조선 엘리트들은 이 난감한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서구 근대적 세계를 대중에게 전파하고 계몽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문학이었던 '탐정소설'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었다.

서구 탐정소설의 번역과정에서 일어난 축약과 번안 등의 다양한 변화는 바로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당시 엘리트들이 고안해 낸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동성의 직역은 식민지 조선 역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서구번역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1941년에 이르러서야 일본어 중역이기는 하지만 서구 탐정소설을 완역한 일련의 소설집[48]을 출판되었던 조선이었다. 조선 상황에 어두웠던 1920년의 김동성은 이처럼 번역과 관련한 조선 엘리트의 고민과 갈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직역 혹은 완역 수용과 관련한 이와 같은 상황은 번역의 문제를 넘어, 조선의 근대성 정도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김동성은 이 점을 간과한 것이었다.

48) 조광사에서 1940년부터 1941년에 걸쳐『세계걸작탐정소설전집』3권을 발행하는데, 모두 원작을 완역한 일본어 번역을 중역한 것이었다. 김동성의 번역을 제외하고는 번안과 축약으로 점철되었던 식민지 시기 조선의 서구 탐정소설 번역사에서 조광사의 기획은 혁명적 시도였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삼천리』, 『조선문단』.

吉川宣子, 「일제시대 초등교육기관의 취학상황」, 『교육사학연구』 제2・3집, 서울대 敎育史學會, 1990, 136-174면.
김대중,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연구」, 『인문과학연구』 제51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 31-59면.
김 번,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 『영미문학연구』 제32호, 영미문학연구회, 2017, 5-30면.
김을한 편저, 『千里駒 金東成』, 을유문화사, 1981.
박진영, 「1910년대 번안소설과 '정탐소설'의 매혹—하몽 이상협의 '貞婦怨'」, 『대동문화연구』 제52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291-315면.
_____, 「천리구 김동성과 셜록 홈즈 번역의 역사」, 『상허학보』 제27집, 상허학회, 2009, 277-317면.
_____,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소명출판, 2019.
송민영, 「조선총독부하 초기의 우리나라 초등과학교육의 상황—조선총독부편찬 《보통학교이과서(1913)》—」,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 제17집 2호,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1998, 67-77면.
_____, 「조선총독부하 6년제 보통학교에서의 초기의 과학교육상황」,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5권 1호, 한국일본교육학회, 2001, 69-92면.
송완식, 『명금(名金)』, 영창서관, 1921.
윤병조, 『명금(名金)』, 신명서림, 1920.
정영목,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 문학동네, 2018.
정혜영, 『탐정소설의 영역』, 역락, 2012.
_____, 「번역과 근대적 문체형성」, 『외국문학연구』 제59호,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15, 355-383면.
최애순, 「식민지시기 탐정소설의 번역과 수용양상 및 장편 번역 탐정소설 서지연구」, 『현대소설연구』 제4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481-524면.

井上建 編, 『翻訳文学の視界』, 思文閣出版, 2012.
俊碩剣士 著, 『拳骨』, 春江堂書店, 1916.
青木緑園 著, 『拳骨』, 中村日吉堂, 1916.

백문임, 「1910년대 조선의 눈에 비추어진 시리얼 퀸」, 『연세대학원신문』 제199호, 연세대 대학원학생회, 2013.6.20.
정진석, 「日帝 탄압에도... 3・1운동 정신 동아일보 지면으로 계속 타올라」, 『동아일보』, 2019.4.1.

Maggie Hennefeld, 「The Exploits of Elaine (1914): Expanded Essay for the National Film registry」, https://www.academia.edu/14489270/The_Exploits_of_Elaine_1914_Expanded_Essay_for_the_National_Film_Registry(2019.08.13 검색).

【Abstract】

Joseon in 1920's and the Meaning of Direct Translation —Concentrating on the Translation Process of *The Exploits of Elaine* in Korean—

Jung, Hye-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lation process of English novel "The Exploits of Elaine" which was published in 1921 Donga Paper by Kim Dong-sung. In the case of Korea, it accommodated the Western modernity in the form of accepting the modern translations that Japan formed during the process of modern Westernization. During the modern receptivity there was always Japan between us and the West, and we always accepted Western modernity as a form of 'second-hand translation'. In the situation of Joseon, where the Japanese translation was accepted as the intermediate for second-hand translation or an adaptation of Western literature, Kim Dong-sung translated the original work. Kim Dong-sung's literary novel meant that Western modern literature, that is, modernity of the West could be accepted without the medium of Japan, that Joseon could autonomously accept the West. This study focuses on the various problems in the translation process of "The Exploits of Elaine" of Kim Dong-sung,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onial Joseon and the translation, and furthermore the modernity of the colonial Joseon.

Keywords: Kim Dong-sung, *The Exploit of Elaine,* Japan, translation, second-hand translation, direct translation, modernity.

접수일: 2019.06.29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16

* Invited professor, Seong-san Liberal Arts College, Daegu University.